

특집

## 반이민 정서 모형을 이용한 부정적 통일의식 분석\*

정승호 (인천대)\*\*

조용신 (서울대)\*\*\*

김규철 (한국개발연구원)

### 국문요약

본 연구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 데이터를 다양한 문화권의 반이민 정서를 설명하는 모형에 적용하여 부정적 통일의식의 원인에 대해 분석한다. 최근 들어 민족주의적 정서에 기반한 통일의 당위성이 약화되는 한편, 다문화적 인식이 강화됨에 따라 통일의식을 이민에 대한 인식의 틀로 분석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분석 결과, 반이민 정서 모형에 근거한 변수들은 당위적 측면의 통일의식과 편익에 근거한 통일의식 모두에서 유의한 설명력을 나타냈다. 반면, 단일민족 변수에 근거한 모형은 통일의 편익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남한 사회의 통일의식이 '단일민족'이라는 특수성보다는 반이민 정서라는 보편적인 정서를 통해서 더 잘 설명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젊은 세대, 여성, 낮은 교육수준, 블루칼라 등 상대적으로 사회, 경제적

DOI URL: <https://doi.org/10.35369/jpus.14.2.202212.7>

\* 이 논문은 2022년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재원으로 통일기반구축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결과물임.

\*\* 제1저자

\*\*\* 교신저자(ycho32@snu.ac.kr)

으로 취약한 계층일수록 통일에 대해 부정적 인식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통일의식, 반이민 정서 모형, 민족

## I. 서론

통일의식(unification perception)은 통일에 대한 태도(attitude) 전반을 지칭하는 것으로 통일에 대한 감정(affect), 인식(cognition), 그리고 행태(behavior)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sup>1)</sup> 이러한 국민의 통일의식은 통일정책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측면에서 의식에 대한 변화 흐름을 포착하기 위한 다양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sup>2)</sup>

최근 이들 조사에서 일관되게 발견되는 현상은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증가이다. 예를 들어, 서울대 조사의 경우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2007년 15.1%에서 2021년에는 26%로 10%p 이상 증가하였다.<sup>3)</sup> 이와 유사한 질문에 대한 통일연구원 조사에서는 부정 응답이 2014년 31.7%에서 2021년 41.3%로 늘었다.<sup>4)</sup> 동아시아연구원 조사에서는 ‘굳이

---

1) 박명규 외, 『2012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2).

그러나 통일의식과 관련된 대부분의 조사는 설문의 특성상 행태보다는 통일에 대한 인식과 감정에 대한 내용에 치우쳐져 있다. 본 연구가 활용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의 주요 문항들 역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 또는 감정의 의미로 통일의식을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일의식을 통일에 대한 감정과 인식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2) 주요한 조사로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2007~현재)’, 통일연구원의 ‘KNIU 통일의식조사(2014~현재)’, 동아시아연구원의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05~현재)’ 등이 있다.

3) 김범수 외 공저, 『2021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1).

4) 이상신 외, 『KINU 통일의식조사 2021: 통일·북한 인식의 새로운 접근』 (서울:

통일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2005년 7.9%에서 2020년 20.2%까지 증가하였다. 여기에 '통일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응답을 부정적 응답에 포함하면 부정적 인식은 52%로 과반을 넘어 선다.<sup>5)</sup>

부정적 통일의식의 증가와 함께 민족주의적 정서에 근거한 통일 당위성도 약화되고 있다. 한반도가 1945년 분단된 이래로, 민족 동질성 회복은 남북통일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어왔다.<sup>6)</sup> 이내영의 연구에서도 북한에 대한 민족적 유대감이 통일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설명하였다.<sup>7)</sup> 그러나 함규진이 지적하였듯이 2000년대 이후 학계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인식에서도 민족주의적 통일의 정당성은 매우 약화되고 있다.<sup>8)</sup> 서울대 조사에서 통일의 이유로 '같은 민족이니까'라고 응답한 비중은 2008년 57.9%로 가장 높게 조사된 이후, 2020년에는 37.3%로 하락하였다. 통일연구원 조사의 유사한 문항에 대한 민족주의적 통일관의 응답은 2017년 32.8%에서 23%로 낮아졌다.

민족주의적 통일의식의 약화는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북한 주민에 대한 남한 주민의 인식변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민족주의 정서가 약화된 이유로 많이 언급되는 것은 이민자 증가로 인한 다문화주의의 확산이기 때문이다.<sup>9)</sup> 다시 말해, 분단 이후 이어져 온 북한 주

---

통일연구원, 2021).

- 5) 황태희, 「북한과 통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이숙정, 이내영, 강원택, 박형준 공편, 『2020 한국인의 정체성』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20), 97~124쪽.
- 6) Shin, Gi-Wook, *Ethnic Nationalism in Korea: Genealogy, Politics, and Legacy* (Redwood City: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6).
- 7) 이내영, 「한국인의 통일의식의 결정요인: 새로운 분석모델의 모색」 『평화연구』 제22권 1호 (2014), 167~206쪽.
- 8) 함규진, 「통일운동과 통일교육을 위한 통일 당위성에 대한 연구」 『통일인문학』 68 (2016), 383~615쪽.
- 9) 강원택, 「한국인의 국가 정체성과 민족 정체성: 15년의 변화」, 이숙정·이내영·강원택·박형준 공편, 『2020 한국인의 정체성』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20),

민에 대한 민족주의적 관점에 더해 최근 들어서는 다문화주의적 관점에 서도 북한 주민을 바라보는 양가감정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sup>10)</sup> 일부 연구에서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이 민족의식보다는 다문화의식에 기인하는 바가 오히려 더 크다는 결과도 제시되고 있다.<sup>11)</sup> 더 나아가 국민정체성에서 종족적 성향(ethnic identity)이 강할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크며 통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결과도 제시되고 있다.<sup>12)</sup> 체류 외국인의 숫자가 늘어나고, 전체 결혼 중 다문화 결혼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sup>13)</sup> 국가의 사회정책이나 학교 교육에서 민족에 대한 강조는 축소되는 반면, 다문화에 대한 강조가 늘어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 2007년 행정자치부가 시행하는 ‘국기에 대한 경례’에서 ‘조국과 민족’이 삭제되었다. 또한 2015년 대통령령 ‘군인복무규율’에서도 ‘민족’이 삭제되어 ‘국민’으로 대체되었다. 2007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에서는 ‘한국이 단일 민족성을 강조하는 것은 영토 내에 사는 서로 다른 민족, 국가 그룹간의 이해와 관용, 우의 증진에 장

43~70쪽; 양영자, 「분단-다문화시대 교육 이념으로서의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의 양립가능성 모색」 『교육과정연구』 제25권 제3호 (2007), 23~48쪽.

10) 천경효, 「단일민족과 다문화주의 사이에서 북한 바라보기 - 고정된 역사 속에서의 타자화 현상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23권 1호 (2015), 274~299쪽.

11) 윤인진 · 송영호, 「한국인의 국민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 『통일문제연구』 제55호 (2011), 143~192쪽.

12) Ha, S. H., and Jang, S. J., “National Identity in a Divided Nation: South Koreans’ Attitudes Toward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 Reunification of Two Korea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vol. 55 (2016), pp. 109-119; 김병연 외, 「남한 · 북한이탈주민의 국민정체성: 통독 사례와의 비교」 『통일과 평화』, 제13권 1호 (2021), 293~335쪽.

13)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이 확산되기 이전인 2019년 기준으로 체류 외국인은 252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4.78%를 차지하고, 전체 결혼 중 다문화 결혼은 10.3%에 달한다.

애가 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sup>14)</sup> 이러한 변화된 흐름에 맞추어, 교육부에서는 '2007년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계획'을 통해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교과서를 다문화 인권을 강조하는 교과서로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sup>15)</sup>

북한을 남한과 별개로 보는 인식이 증가한 것도 민족주의 약화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동아시아연구원의 조사에서도 '남한 지역만이 우리 영토'라는 응답이 2005년 26.3%에서 2020년에는 62.1%(20대는 73.2%)까지 증가하였다.<sup>16)</sup> 강원택은 이처럼 남한의 젊은 세대들이 정체성을 남한에서만 찾으려 하는 현상을 '대한민국 민족주의'라고 호칭한 바 있다.<sup>17)</sup> 같은 조사에서 '남한과 북한은 별개의 독립적인 국가'라는 데 동의한 비율이 2005년 79%에서 2020년 90.2%까지 증가하였다. 이는 사실상 대부분의 남한 주민들이 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편, Campbell은 세계화(globalization)의 영향에 주목하였다. 세계화는 현대적이고 세계시민적 의식을 강화하여, 한국인 정체성에서 종족적 요인을 약화시키는 한편, 문화적 요인의 중요성은 커지게 한다고 주장하였다.<sup>18)</sup> 또한, 세계화로 인한 경쟁의 심화는 젊은 세대들이 통일 등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하지만, 자신의 경제적 이익에는 민감하게 만든다고 하였다. 일례로,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한 일부 국민의 반

14) 『연합뉴스』 2007년 8월 19일, 「유엔, 韓 '단일 민족국가' 이미지 극복 권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1730184?sid=104>

15) 엄선희·정영근, 「초, 중학교 교육과정에 나타난 다문화교육의 기본 방향 고찰 -2009 2월 부분개정 경기도 초,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을 중심으로」 『교육연구』 (2009), 1~20쪽.

16) 강원택, 「한국인의 국가 정체성과 민족 정체성: 15년의 변화」.

17) 강원택,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 대한민국 민족주의」, 강원택 편, 『한국인의 국가 정체성과 한국정치』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06), 15~38쪽.

18) Campbell, Emma, *South Korea's New Nationalism: The End of "One Korea"?* (Boulder: FirstForum Press, 2016).

감에 대해, 경쟁 심화로 인해 젊은 세대들이 ‘불공정(unfairness)’, ‘역차별(disadvantage)’ 등에 민감하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주목할 만한 사회 현상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에 대한 국민여론이다. 한국갤럽의 2018년 1월 조사에 따르면,<sup>19)</sup> 단일팀 구성에 대해 ‘잘된 일’이라고 평가한 비율은 40%로 ‘잘못된 일’이라고 응답한 50%보다 오차범위 밖으로 낮게 나타났다.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부정적 시각이 우세하였는데, 특히 20대의 62%가 ‘잘못된 일’로 응답하여 부정적 시각이 가장 높았다. 젊은 세대들은 북한 선수들의 참가로 남한 출신 아이스하키 선수들에게 불이익이 예상되자, 이에 대해 ‘불공정’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앞선 연구들은 북한 주민에 대한 민족주의적 관점이 약화되고 다문화주의적 관점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통일의 대상인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이 점차 다문화적 경향이 강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은 향후 남한 주민의 통일의식을 ‘민족’이라는 특수성만으로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민족주의적 통일 당위성이 약화된 현실을 고려하여, 이질적 문화의 수용성과 관련된 보다 보편적인 모형을 이용하여 부정적 통일인식에 대한 설명을 시도한다. 즉 통일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이질적 문화의 이민자에 대한 배타적 태도간의 유사성에 주목하여, 유럽이나 미국의 반이민 정서(Anti-Immigration Sentiment)를 설명하는 모형<sup>20)</sup>을 이용하여 부정적 통일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다. 기존 통일의식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정치적 성향, 개인적 통일편익에 대한 계산, 교육 수준 등을 통일의식의 중요한 요인으로 설

19) 여론조사의 세부적인 사항은

<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902> 참고.

20) 반이민 정서 모형은 이민인식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일반적인 모형인 ‘Anti-immigration sentiment model’을 직역한 것이다.

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수는 반이민 정서 모형에서도 중요한 설명변수로 포괄하고 있다.<sup>21)</sup>

반이민 정서 모형을 적용하여 통일의식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사회의 통일의식이 가지는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통일의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반이민 정서 모형의 주요 설명변수인 인적자원, 정치적 성향, 경제적 경쟁 등으로 나타난다면, 우리사회의 부정적 통일의식은 보편적인 반이민 정서와 상당한 유사성을 가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 반면 통일의식에 미치는 요인이 반이민 정서 모형의 설명과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이나, 민족주의에 기반한 모형이 설명력을 가진다면 이는 통일의식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다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통일정책과 관련된 대립과 갈등의 원인을 이론적으로 규명함으로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시사점 도출이 가능할 것이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II장에서는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 및 주요변수를 설명한다. III장에서는 부정적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단일민족 모형과 반이민 정서 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비교한다. V장에서는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21) 최우선 외, 「통일인식 차이의 원인: 합리주의적 설명」 『아세아연구』 제59권 3호 (2016), 84~112쪽; 정동준, 「2016년 국회의원 선거 이후 시민들의 통일의식 변화: 이념적 양극화인가, 당파적 편향인가?」 『한국정치학회보』 제50권 5호 (2016), 131~161쪽.

## II. 데이터

본 연구는 2007~2021년까지 15년간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 데이터를 통합(pooling)하여 분석자료로 사용한다. 이 조사는 매년 1,200명가량의 표본을 대상으로 하며, 전체 표본의 수는 18,017명이다. 이는 통일의식 관련조사 중 가장 큰 규모이다. 표본추출 방법은 국민 여론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인구 현황을 기준으로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배분한 후 각 모집단 비율에 따라 층화하여 추출하는 다단 층화무작위추출법(multi-stage stratified sampling)을 이용한다. 전체 설문은 1. 인구학적 특징, 2. 통일의식, 3. 북한에 대한 인식, 4.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5. 탈북자에 대한 인식, 6. 주변국 관계에 대한 인식, 7.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 등 총 7개 영역의 70여 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설문문항 중 일부는 조사기간 중 변경, 삭제된 것도 있으나, 대부분의 문항은 매년 같은 내용으로 조사되어 표본의 손실을 최소화하며 분석이 가능하다.

설문문항 중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되는 통일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다음의 세 문항을 사용하였다(〈표 1〉 참조). 첫 번째 문항은 통일의 필요성이다. 원래 설문의 보기는 1에서 5로 갈수록 통일의 필요성이 작아지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높은 값을 가질수록 통일의 필요성이 커지는 것으로 변수 값을 변환하였다. 다음 두 문항은 통일의 집단이익과 개인이익에 대한 문항이다. 원래 설문에는 4개의 보기가 있었지만, 실증 분석에서는 긍정과 부정의식의 명확한 차이를 보기 위하여 바이너리 변수로 변환하였다. 0의 경우는 '별로/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를 의미하고, 1의 경우는 '다소/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를 의미한다.

〈표 1〉 통일외식 관련 문항 및 변수 값

변수	문항 내용	변수값	
		재코딩 전	재코딩 후
통일의 필요성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필요하다 2. 약간 필요하다 3. 반반/그저 그렇다 4. 별로 필요하지 않다 5. 전혀 필요하지 않다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별로 필요하지 않다 3. 반반/그저 그렇다 4. 약간 필요하다 5. 매우 필요하다
통일의 집단이익	통일이 남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2.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3.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4.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0.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1.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통일의 개인이익	통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2.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3.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4.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0.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1.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자료: 2021 통일의식조사 통합코드북

통일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Rustenbach가 제시한 반이민 정서 모형을 통해 선정하였다.<sup>22)</sup> Rustenbach는 반이민 정서와 관련된 광범위한 문헌분석을 통해 8가지의 주요한 이론을 제시하였다.<sup>23)</sup> 이 연구에서

<sup>22)</sup> Rustenbach, Eliasa. "Sources of Negative Attitudes Toward Immigrants in Europe: A Multi-Level Analysi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44, no 1 (2010), pp. 53-77.

<sup>23)</sup> Rustenbach (2010)논문에서는 포함되었으나, 이 연구 분석에서 빠진 이론은 주변성이론(Cultural Marginality Theory), 외국인투자이론(Foreign Direct Investment Theory), 사회통합도이론(Societal Integration Theory) 등 세 가지이다. 주변성이론(Cultural Marginality Theory)은 개인의 경험을 강조하는 이론으로 이민자와 유사한 경험, 예를 들어 차별이나, 이민자 가정 출신의 경우 이민자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는 반면, 이민자와 언어, 종교, 문화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반이민정서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론이다. 외국인투자이론(Foreign Direct Investment Theory)은 해외투자가 늘어날 경우, 투자한 나라에 대한 사업

는 관련 문항이 설문조사에 포함된 다음 5가지의 이론을 실증분석에 사용한다(〈표 2〉 참고).

첫 번째 이론은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으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이민을 반대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기술수준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민자와 노동시장에서 경쟁할 가능성은 낮아지며, 높은 교육 수준은 또한 다른 인종과 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때문이다.<sup>24)</sup> 인적자원은 최종학력을 통해 측정한다.

두 번째는 정치성향이론(Political Affiliation Theory)으로 보수적 이념을 갖고 있을수록 이민에 반대한다는 이론이다. 최근 유럽에서 많은 우익 정당이 집권에 성공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민자 통제에 대한 대중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통일의식 연구에서도 이 이론의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박종희는 진보성향의 응답자가 보수성향의 응답자보다 통일 지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고,<sup>25)</sup> 정동준은 2016년 총선당시 야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을 지지한 응답자의 경우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하였다.<sup>26)</sup> 정치적 성향은 ‘자신

---

상 정보 및 국가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 반이민 정서가 줄어든다는 이론이다. 마지막으로 사회통합도이론(Societal Integration Theory)은 사회 전반의 신뢰 수준과 이민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이론으로 사회 전반의 신뢰수준이 낮을수록 이민에 대한 반대 여론도 커진다는 이론이다.

<sup>24)</sup> Espenshade, T. J., and C. A. Calhoun, “An Analysis of Public Opinion toward Undocumented Immigration,”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vol. 12, no. 3 (1993), pp. 189-224; Mayda, A. M. “Who is Against Immigration? A Cross-Country Investigation of Individual Attitudes toward Immigrant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88, no. 3 (2006), pp. 510-530.

<sup>25)</sup> 박종희, 「진보와 보수, 그리고 통일: 통일의식조사를 통해 나타난 통일에 대한 인식과 국내정치의 이념적 대립구도의 관계」, 윤영관 (편), 『한반도 통일』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13).

<sup>26)</sup> 정동준, 「2016년 국회의원 선거 이후 시민들의 통일의식 변화 : 이념적 양극화인가, 당파적 편향인가?」 『한국정치학회보』 제50권 5호 (2016), 131~161쪽.

이 얼마나 진보적/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설문을 통해 측정한다.

세 번째는 안전이론(Neighborhood Safety Theory)으로 개인이 주변의 범죄에 대해 우려가 클수록 이민에 반대한다는 이론이다. 이민자들은 사회 내에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소들도 함께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사회적 병폐의 주요한 원인이 이민자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생긴다는 것이다. 범죄에 대한 우려 정도는 ‘통일이 되면 범죄문제가 개선/악화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한다.

네 번째는 접촉이론(Contact Theory)으로 일상적으로 이민자와의 접촉이 많을수록 이민을 반대한다는 이론이다. 이민자들과 우정이나 친밀감 없이 지속적으로 접촉하게 되면, 이민자에 대한 의심, 반감이 생기고 그러한 감정으로부터 반이민 정서도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sup>27)</sup> 물론 접촉이 친밀감을 수반하는 경우(true acquaintance)에는 반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Pettigrew은 친밀한 접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동등한 지위, 공통의 목적, 서로에 대한 협력적 도움, 정부(제도)의 지원 등의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28)</sup> 접촉이론은 ‘탈북자와의 만남이 있었는지 여부’를 통해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경쟁이론(Economic Competition Theory)은 경제적 변수와 이민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이다. 즉, 저임금, 저숙련 노동자일수록 이민자와의 경쟁을 우려해 이민을 반대한다.<sup>29)</sup> 또한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경우도 이민을 반대하는데, 이는 불경기의 원인을 이민자들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sup>30)</sup> 경쟁을 측정하는

<sup>27)</sup> Fetzer, J. S. *Public Attitudes toward Immigration in the United States, France, and German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sup>28)</sup> Pettigrew Thomas F. *Racially Separate or Together?* (New York: McGraw-Hill, 1971).

<sup>29)</sup> Scheve, K. F., and M. J. Slaughter, “Labor Market Competition and Individual Preferences over Immigration Policy.”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83, no. 1 (2001), pp. 133-145.

변수로 ‘직업이 블루칼라인지 여부’와 ‘현재의 경제상황에 만족/불만족 하십니까?’라는 질문의 응답으로 측정한다.

〈표 2〉 통일의식조사 문항 중 반이민 정서 모형과 관련된 설문문항

반이민 정서 모형	측정내용	통일의식조사 설문문항	변수값		통일의식에 예상되는 효과
			재코딩 전	재코딩 후	
인적자본이론 (Human Capital Theory)	교육수준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1. 초등졸 이하 2. 중졸이하 3. 고졸 4. 대재/대졸 이상 5. 대학원 이상	-	+
정치성향이론 (Political Affiliation Theory)	정치성향	자신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진보적 2. 약간 진보적 3. 중도 4. 약간 보수적 5. 매우 보수적	1. 매우 보수적 2. 약간 보수적 3. 중도 4. 약간 진보적 5. 매우 진보적	+
안전이론 (Neighborhood Safety Theory)	범죄문제	통일이 되면 범죄문제가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크게 개선 2. 약간 개선 3. 차이 없음 4. 약간 악화 5. 크게 악화	1. 크게 악화 2. 약간 악화 3. 차이 없음 4. 약간 개선 5. 크게 개선	+
접촉이론 (Contact Theory)	탈북자와의 만남 경험	북한과 관련하여 탈북자와 만난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1. 있다 2. 없다	0. 없다 1. 있다	(+, 단, 친밀한 접촉의 경우)
경쟁이론 (Economic Competition Theory)	숙련도	직업은 무엇입니까?	1. 농/수축산업 2. 자영업 3. 블루칼라 4. 화이트칼라 5. 전업주부 6. 학생/무직/기타	0. 기타직업 1. 블루칼라	-
	경제상황 만족도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얼마나 만족 또는 불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 2. 다소 만족 3. 다소 불만족 4. 매우 불만족	1. 매우불만족 2. 다소 불만족 3. 다소 만족 4. 매우 만족	+

자료: 2021 통일의식조사 통합코드북

30) Espenshade, T. J., and K. Hempstead, “Contemporary American Attitudes toward U.S. Immigr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30, no. 2 (1996), pp. 535-570.

앞서 설명한 변수들의 요약통계량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각 변수마다 유효한 응답자의 수가 달라 관측치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대부분의 변수가 2022년 조사까지 포함하여 관측치가 18,000여 개 전후인 반면, ‘탈북자와의 만남’ 변수는 2020년까지만 조사되었기 때문에 16,812개로 가장 적다.

통일외식과 관련하여 필요성의 평균값은 중립적인 태도에 가깝게 나타났다. ‘통일의 필요성’의 평균값은 ‘반반/그저 그렇다(3점)’와 ‘약간 필요하다(4점)’의 중간 정도인 3.52를 나타났다. 통일의 이익에 관하여는 통일이 국가에게 이익을 준다는 견해가 개인에게 이익을 준다는 견해보다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통일이 개인에게 이익을 준다는 견해는 26.3%인데 비해, 국가에게 이익을 준다는 견해는 54.1%로 조사되었다.

인구학적 변수는 연령과 성별을 포함한다. 조사 대상이 19세 이상 성인이기 때문에 연령대가 19~74세까지 분포되어 있고, 평균은 42.8세이다. 성별은 남성은 ‘0’, 여성을 ‘1’로 코딩하였고, 여성의 비율은 49.4%로 대체로 절반을 차지한다.

다음은 반이민 정서 모형의 설명변수들이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3점)’과 ‘대학 재학/졸업(4점)’ 사이인 3.35로 나타났다. 전체 표본 중 약 15.3%가 탈북자와 만남의 경험이 있었고, 정치성향의 평균값은 3.05로 ‘중도적(3점)’으로 조사되었다. 통일이후 범죄에 대한 예상은 2.15로 ‘약간 악화(2점)’ 될 것이라는 응답에 가까웠다. 블루칼라 직업군의 비중은 전체 응답자의 25.2%를 차지하였고,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2.05로 ‘다소 불만족(2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존 통일 논의에 중요 변수로 다루어졌던 통일의 이유로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라고 응답한 비중은 43.4%로 여전히 통일에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sup>31)</sup>

31) 통일의 이유를 묻는 설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

〈표 3〉 요약 통계량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대값
종속변수	통일의 필요성	18,017	3.52	1.158	1	5
	통일의 개인이익	18,017	0.263	0.440	0	1
	통일의 집단이익	18,017	0.541	0.498	0	1
독립변수	연령	18,017	42.84	13.587	19	74
	성별	18,017	0.494	0.500	0	1
	교육수준	17,961	3.35	0.763	1	5
	탈북자와의 만남	16,816	0.153	0.360	0	1
	정치성향	18,012	3.05	0.838	1	5
	통일 이후 범죄문제에 대한 예상	18,008	2.15	0.922	1	5
	블루칼라 직업	18,017	0.252	0.434	0	1
	한국경제 만족도	18,010	2.05	0.694	1	4
	단일민족 (통일의 가장 큰 이유: 단일민족)	18,017	0.434	0.496	0	1

### Ⅲ. 실증분석

반이민 정서 모형을 통해 통일의식을 분석하기에 앞서 기존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민족변수의 영향을 살펴보도록 한다. 〈표 4〉의 모형 (1)~(3)의 각 열은 종속변수로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개인이익’, ‘통일의 집단이익’을 사용한 분석결과를 각각 보여주고 있다. 모형 (1)은 종속변수가 순차적인 값을 갖고 있어 순서형 로지스틱(ordered logistic) 모형을 적용하였고, (2), (3)는 0과 1의 2항 값을 갖고 있으므로 로지스틱(logistic)

장 큰 이유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같은 민족이니까 2. 이산 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 3. 남북 간에 전쟁위험을 없애기 위해 4. 북한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5.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6. 기타

모형을 적용하여 회귀분석 하였다.

단일민족 변수는 ‘통일의 필요성’에서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일의 편익에 대해서는 개인이익과 집단이익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단일민족’에 근거한 통일론은 당위적 측면의 통일의식에 대해서는 설명력을 가지지만, 편익 측면의 의식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4〉 통일의식에 미치는 요인 분석 1: 단일민족 모형

	(1) 통일의 필요성	(2) 통일의 개인이익	(3) 통일의 집단이익
연령	0.0261*** (0.00103)	0.00143 (0.00127)	0.00186 (0.00116)
성별	-0.490*** (0.0271)	-0.487*** (0.0345)	-0.390*** (0.0303)
단일민족	0.270*** (0.0277)	0.00560 (0.0353)	-0.0282 (0.0311)
관측치	18,017	18,017	18,017
연도고정효과	YES	YES	YES
지역고정효과	YES	YES	YES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통제변수인 연령과 성별이 통일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연령 변수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연령이 높아질수록 통일의 당위성에 관련한 질문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이다. 이를 뒤집어보면 젊은 세대일수록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통일의 편익을 종속변수

로 한 모형에서는 통일의 당위성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과는 달리 연령이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의 경우는 모든 모형에서 남성에 비해 통일에 부정적인 정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별의 효과는 통일의식에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여성이 왜 통일에 더 부정적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명되지 못했다. 다만, 통일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해 여성이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표 5〉는 반이민 정서 모형을 이용하여 통일의식을 분석한 결과이다. 반이민 정서 모형은 단일민족 모형과는 달리 당위론적 통일의식뿐만 아니라, 편익에 근거한 통일의식에 대해서도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이민 정서 모형에서 예측한 것과 같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Human Capital Theory), 정치적으로 진보적일수록(Political Affiliation Theory), 통일이후 범죄에 대한 우려가 낮을수록(Neighborhood Safety Theory) 긍정적 통일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접촉이론(contact theory)과 관련된 변수는 이론이 예상하는 부호와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2022년 6월 기준으로 현재 남한 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숫자는 33,834명으로,<sup>32)</sup> 남한 인구 전체로 보았을 때 매우 적은 숫자이다. 이 연구에서도 ‘북한이탈주민과 만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15.5%에 불과하다.<sup>33)</sup> 김나영은 탈북자와의 접촉한 경험이 긍정적인 통일의식을 갖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을 제시한 바

32) 구체적인 통계는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현황 참고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l/>

33) 남한에 거주하는 탈북자수가 3만 3천여 명으로 남한 인구의 0.06%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만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15.5%라는 수치는 다소 과장된 숫자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조선족 이민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착각하거나 북한이탈주민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것을 밝히기 싫은 심리적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표 5〉 통일의식에 미치는 요인 분석 2: 반이민 정서 모형

	(1) 통일의 필요성	(2) 통일의 개인이익	(3) 통일의 집단이익
<b>인구통제변수</b>			
연령	0.0388*** (0.00135)	0.00937*** (0.00169)	0.0123*** (0.00152)
성별	-0.451*** (0.0289)	-0.443*** (0.0378)	-0.327*** (0.0329)
<b>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b>			
교육수준	0.236*** (0.0236)	0.202*** (0.0306)	0.274*** (0.0264)
<b>정치성향이론(Political Affiliation Theory)</b>			
정치성향	0.250*** (0.0193)	0.216*** (0.0235)	0.175*** (0.0202)
<b>안전이론(Neighborhood Safety Theory)</b>			
범죄문제	0.296*** (0.0162)	0.516*** (0.0201)	0.390*** (0.0188)
<b>접촉이론(Contact Theory)</b>			
탈북자 만남	0.305*** (0.0413)	0.420*** (0.0496)	0.331*** (0.0465)
<b>경쟁이론(Economic Competition Theory)</b>			
블루칼라	-0.135*** (0.0333)	-0.0754* (0.0440)	-0.0241 (0.0383)
경제만족도	0.185*** (0.0217)	0.250*** (0.0276)	0.244*** (0.0242)
관측치	16,741	16,741	16,741
연도고정효과	YES	YES	YES
지역고정효과	YES	YES	YES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lt;0.01, \*\* p&lt;0.05, \* p&lt;0.1

있다.<sup>34)</sup> 이처럼 접촉이론의 예상과는 달리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은 이

34) 김나영, 「북한 및 탈북민 접촉경험이 통일의식에 미치는 영향: 탈북민 친밀감과 북한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1권

민자 접촉과는 달리 해당 대상에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준다는 것을 확인된다. 이는 역사와 인종이 다른 일반 이민에 대한 태도와 역사와 민족을 공유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sup>35)</sup>

경쟁이론(Economic Competition Theory)의 변수는 모형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우선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만족도는 반이민 정서 이론이 예상하는 대로 긍정적 통일인식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또한 직업이 블루칼라에 속할 경우 계수의 부호가 마이너스로 부정적 통일인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통일의 집단이익’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 (3)에서는 변수의 유의성이 사라진다. 이는 통일이 실업 등 개인적인 이익과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만, 국가 및 공동체 전체 이익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즉, 통일로 인해 북한의 저임 노동력이 남한 사회에 들어오게 될 경우, 블루칼라 노동자는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것을 우려하게 되지만, 이러한 우려가 통일로 인한 국가의 이익에 대한 인식까지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인구학적 통제변수인 연령과 성별의 효과는 단일민족 모형과 유사하게 연령이 높을수록 남성일수록 통일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장년세대 보다 청년세대에서 부정적 통일인식이 높다는 최근의 연구결과<sup>36)</sup>와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37)</sup>

---

8호 (2021), 489~497쪽.

35) 본 연구는 반이민 정서 모형의 주요 변수들이 통일인식을 설명하는데 동일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증하려는 것이다. 접촉이론의 경우 예상(이민자 만난 경험이 있을수록 이민 반대)과 반대의 결과(탈북자 만난 경험이 있을수록 통일 찬성)가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점이 나타난 원인이 무엇인지는 향후 심층 연구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36) 김병연, 「청년세대의 통일인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통일대비국가전략연

〈표 6〉은 앞서 분석한 단일민족모형과 반이민 정서 모형 변수들을 모두 설명변수로 추가한 분석결과이다. 인구통제변수와 단일민족모형 변수, 그리고 반이민 정서 모형 변수의 유의미성은 각 모형별 추정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자면 연령이 낮을수록, 여성이 남성보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정치성향이 보수적일수록, 통일 이후 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을수록, 탈북자와의 만남이 적을수록,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만족감이 낮을수록 당위적인 통일의식에 부정적이다. 마지막으로, 단일민족 성향을 가진 응답자들은 통일의 이익에 대해서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금까지 순서형 로지스틱 모형과 로지스틱 모형의 결과를 분석했다. 이들 모형의 결과는 계수 값의 유의성과 부호의 결과를 통해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지만을 해석하는데 활용된다. 일반적인 선형 회귀식에서와 같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알기 위해서는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따로 계산해 주어야 한다. 부록의 〈표 A-1〉, 〈표 A-2〉, 〈표 A-3〉은 각각 〈표 4〉, 〈표 5〉, 〈표 6〉에 대응되는 설명변수들의 한계효과를 나타낸다. 본문에서는 주요 변수별 한계효과에 대한 분석을 선별적으로 제시한다.

부록 〈표 A-1〉의 각 설명변수의 추정치는 다른 통제변수가 평균값일 때, 각 설명변수의 한계효과 크기를 나타내고 있다. 즉, 각 설명변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응답자가 통일에 대한 응답을 선택할 확률의 변화를 추정한 결과이다. 종속변수별 추정치를 살펴보면 연령이 1세 증가할 때

구팀, 『평화의 신지정학』 (서울: 박영사, 2019), 143~171쪽.

37) 부록의 〈그림 A-1〉은 연령대별 통일 필요성 인식에 대한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전 연도에서 낮게 나타나 청년세대가 기성세대 대비 통일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형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6〉 통일의식에 미치는 요인 분석 3: 단일민족과 반이민 정서 종합 모형

	(1) 통일의 필요성	(2) 통일의 개인이익	(3) 통일의 집단이익
<b>인구통제변수</b>			
연령	0.0378*** (0.00135)	0.00937*** (0.00170)	0.0125*** (0.00152)
성별	-0.448*** (0.0289)	-0.443*** (0.0378)	-0.327*** (0.0329)
<b>단일민족성향</b>			
단일민족	0.289*** (0.0289)	-0.00164 (0.0379)	-0.0385 (0.0331)
<b>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b>			
교육수준	0.246*** (0.0236)	0.202*** (0.0306)	0.272*** (0.0265)
<b>정치성향이론(Political Affiliation Theory)</b>			
정치성향	0.249*** (0.0193)	0.216*** (0.0235)	0.175*** (0.0202)
<b>안전이론(Neighborhood Safety Theory)</b>			
범죄문제	0.293*** (0.0162)	0.516*** (0.0201)	0.391*** (0.0188)
<b>접촉이론(Contact Theory)</b>			
탈북자만남	0.311*** (0.0413)	0.420*** (0.0496)	0.330*** (0.0465)
<b>경쟁이론(Economic Competition Theory)</b>			
블루칼라	-0.135*** (0.0333)	-0.0754* (0.0440)	-0.0241 (0.0383)
경제만족도	0.189*** (0.0218)	0.250*** (0.0276)	0.243*** (0.0242)
관측치	16,741	16,741	16,741
연도고정효과	YES	YES	YES
지역고정효과	YES	YES	YES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할 확률은 약 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여성 응답자가 남성 응답자 대비 통일에 매우 필요하다

는 응답을 선택할 확률이 8.6%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설명변수인 단일민족 변수의 경우 응답자가 통일이 되어야 할 가장 큰 이유가 “같은 민족이니까”라고 응답할 경우, ‘통일의 필요성’ 모형에서 “매우 필요하다”라는 응답을 선택할 확률이 4.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록의 <표 A-2>는 반이민 정서 모형 변수가 ‘통일의 필요성’에 미치는 한계효과 추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주요 관심변수인 반이민 정서 모형 변수의 한계효과 추정치를 살펴보면, 교육수준의 경우 변수 값이 한 단위 증가할 때(예를 들어, 고졸에서 대재/대졸로 바뀌는 경우) 통일이 남한에게 이익(집단이익)이 된다고 응답할 확률을 약 6.8% 증가시켜 세 가지 모형 중 가장 큰 한계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의 개인이익’에 대한 한계효과가 뒤를 이었다. ‘정치성향’ 변수의 경우 한계효과가 ‘통일의 필요성’ 모형과 ‘통일의 집단이익’에서 약 4.3%로 나타나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범죄문제’ 변수와 ‘탈북자 만남’ 변수는 ‘통일의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통일의 개인이익’과 ‘통일의 집단이익’ 등 이익 관련 변수에 대한 한계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가 블루칼라 직업군일 경우 다른 직업에 비하여 ‘통일의 필요성’ 모형에서 통일에 긍정적으로 응답할 확률이 2.3% 낮았다. 한편 거시경제에 대한 인식인 ‘한국경제의 만족도’ 변수는 ‘통일의 집단이익’, ‘통일의 개인이익’, 그리고 ‘통일의 필요성’ 순으로 한계효과가 커 이익 관련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록의 <표 A-3>은 앞서 분석한 단일민족모형과 반이민 정서 모형 변수들을 모두 설명변수로 추가한 한계효과 분석결과이다. 추정된 한계효과 추정치는 앞선 개별 모형의 한계효과 분석결과와 절대적, 상대적 크기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IV. 결론 및 시사점

그동안 한국 사회의 통일인식과 관련한 연구는 민족적 특수성에 기반하여 분석되어왔다. 이는 남한과 북한이 동일한 역사와 문화, 민족적 특성을 오랜 기간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단이 오래 지속되면서 남한 주민들은 북한이라는 대상을 민족적 감정 외에 보편적인 정서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여전히 한반도 분단과 통일은 남북한 간의 역사적 특수성이 반영된 독특한 상황과 현상이지만, 다른 한편 북한을 독립된 국가로 인식하거나 북한이탈주민을 다문화 가정과 동일시 여기는 경향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편적인 반이민 정서 이론에 기초하여 한국 사회의 통일인식을 분석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연구는 2007~2022년까지 16년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 데이터를 통합하여 부정적 통일의식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론적으로는 기존연구에서 통일의식의 중요한 변수로 다루어진 단일민족 변수에 근거한 모형과 다양한 문화권의 반이민 정서를 설명하는 보편적 모형을 함께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일민족 변수에 근거한 모형은 당위적 측면의 통일의식에는 유의한 설명력을 지니지만, 편익에 근거한 통일의식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이민 정서 모형에 근거한 변수들은 통일의식의 당위적 측면과 편익적 측면 모두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둘째, 젊은 세대와 여성, 낮은 교육수준의 응답자가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반이민 정서 모형의 대부분 변수는 이론과 부합한 결과를 보였지만, 접촉이론의 경우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 경험이 오히려 긍정적 통일의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에 북한이탈주민이 소수

임에도 이들과 접촉한 사람들은 이미 통일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마지막, 기술수준이 낮은 블루칼라 직업군의 경우 대체로 통일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편익 측면에서, 통일의 개인적 이익에는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집단이익에는 유의한 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는 통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저숙련 노동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와 실업의 우려가 주로 개인적인 직업 안정성에 대하여만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논문의 실증분석 결과는 현재 남한 사회의 통일의식이 '단일민족'이라는 특수성보다는 반이민 정서라는 보편적인 정서를 통해서 더 잘 설명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반이민 정서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완화하는 정책이 긍정적 통일의식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젊은 세대와 여성, 낮은 교육수준, 블루칼라 응답자가 통일에 부정적이라는 결과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에서 젊은 세대와 여성, 저학력자, 블루칼라 노동자는 중장년 세대와 남성, 고학력자, 화이트 칼라와 비교해 볼 때 사회적, 경제적으로 약자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일수록 통일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는다는 점은 정부의 통일정책을 수립 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 접수: 2022년 10월 26일 / 심사: 2022년 12월 14일 / 게재 확정: 2022년 12월 15일

## 【참고문헌】

김범수 외 공저, 『2021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1.  
박명규 외, 『2012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2.  
이상신 외, 『KINU 통일의식조사 2021: 통일·북한 인식의 새로운 접근』, 서울: 통일연구원, 2021.

Campbell, Emma, *South Korea's New Nationalism: The End of "One Korea"?*, Boulder: FirstForum Press, 2016.

Fetzer, J. S. *Public Attitudes toward Immigration in the United States, France, and German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Pettigrew Thomas F. *Racially Separate or Together?*, New York: McGraw-Hill, 1971.

Shin, Gi-Wook, *Ethnic Nationalism in Korea: Genealogy, Politics, and Legacy*, Redwood City: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6.

강원택,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 대한민국 민족주의」, 강원택 편, 『한국인의 국가 정체성과 한국정치』,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06, 15~38쪽.

\_\_\_\_\_, 「한국인의 국가 정체성과 민족 정체성: 15년의 변화」, 이숙정 · 이내영 · 강원택 · 박형준 공편, 『2020 한국인의 정체성』,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20, 43~70쪽.

김나영, 「북한 및 탈북민 접촉경험이 통일의식에 미치는 영향: 탈북민 친밀감과 북한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1권 8호, 2021, 489~497쪽.

김병연, 「청년세대의 통일의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통일대비국가전략연구팀, 『평화의 신지정학』, 서울: 박영사, 2019, 143~171쪽.

김병연 외, 「남한·북한이탈주민의 국민정체성: 통독 사례와의 비교」 『통일과 평화』 제13권 1호, 2021, 293~335쪽.

박종희, 「진보와 보수, 그리고 통일: 통일의식조사를 통해 나타난 통일에 대한 인식과 국내정치의 이념적 대립구도의 관계」, 윤영관 (편), 『한반도 통일』,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13.

양영자, 「분단-다문화시대 교육 이념으로서의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의 양립가능

- 성 모색, 『교육과정연구』 제25권 제3호, 2007, 23~48쪽.
- 엄선희·정영근, 「초, 중학교 교육과정에 나타난 다문화교육의 기본 방향 고찰 -2009 2월 부분개정 경기도 초,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을 중심으로」 『교육연구』, 2009, 1~20쪽.
- 이내영, 「한국인의 통일외식의 결정요인: 새로운 분석모델의 모색」 『평화연구』 제22권 1호, 2014, 167~206쪽.
- 윤인진·송영호, 「한국인의 국민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 『통일문제연구』 제55호, 2011, 143~192쪽.
- 정동준, 「2016년 국회의원 선거 이후 시민들의 통일외식 변화: 이념적 양극화인가, 당파적 편향인가?」 『한국정치학회보』 제50권 5호, 2016, 131~161쪽.
- 천경효, 「단일민족과 다문화주의 사이에서 북한 바라보기 - 고정된 역사 속에서의 타자화 현상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23권 1호, 2015, 274~299쪽.
- 최우선 외, 「통일외식 차이의 원인: 합리주의적 설명」 『아세아연구』 제59권 3호, 2016, 84~112쪽.
- 함규진, 「통일운동과 통일교육을 위한 통일 당위성에 대한 연구」 『통일인문학』 제68권, 2016, 383~615쪽.
- 황태희, 「북한과 통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이숙정, 이내영, 강원택, 박형준 공 편, 『2020 한국인의 정체성』,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20, 97~124쪽.
- Espenshade, T. J., and C. A. Calhoun, "An Analysis of Public Opinion toward Undocumented Immigration,"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vol. 12, no. 3 (1993), pp. 189-224.
- \_\_\_\_\_, and K. Hempstead, "Contemporary American Attitudes toward U.S. Immigr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30, no. 2 (1996), pp. 535-570.
- Ha, S. H., and Jang, S. J., "National Identity in a Divided Nation: South Koreans' Attitudes Toward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 Reunification of Two Korea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vol. 55 (2016), pp. 109-119.
- Mayda, A. M. "Who is Against Immigration? A Cross-Country Investigation of Individual Attitudes toward Immigrant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88, no. 3 (2006), pp. 510-530.

- Rustenbach, Eliasa, "Sources of Negative Attitudes Toward Immigrants in Europe: A Multi-Level Analysi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44, no. 1 (2010), pp. 53-77.
- Scheve, K. F., and M. J. Slaughter, "Labor Market Competition and Individual Preferences over Immigration Policy,"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83, no. 1 (2001), pp. 133-145.

## 부록

〈표 A-1〉 단일민족 모형 (한계효과 분석)

	(1)	(2)	(3)
<b>통일의 필요성</b>	연령	성별	단일민족
1: 전혀 필요없다.	-0.000962	0.0181	-0.00994
2: 별로 필요하지 않다.	-0.00325	0.061	-0.0336
3: 반반/그저 그렇다.	-0.00223	0.0419	-0.0231
4: 약간 필요하다.	0.00189	-0.0354	0.0195
5: 매우 필요하다.	0.00456	-0.0855	0.0471
Observations	18,017	18,017	18,017
	(1)	(2)	(3)
<b>통일의 개인이익</b>	연령	성별	단일민족
1: 이익이된다.	0.000275	-0.0932	0.00107
Observations	18,017	18,017	18,017
	(1)	(2)	(3)
<b>통일의 집단이익</b>	연령	성별	단일민족
1: 이익이된다.	0.000462	-0.0969	-0.00699
Observations	18,017	18,017	18,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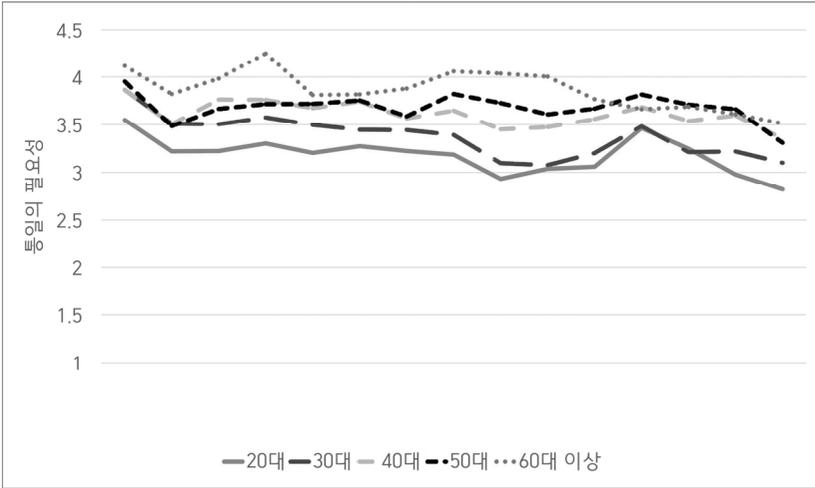
〈표 A-2〉 반이민 정서모형 (한계효과 분석)

	(1)	(2)	(3)	(4)	(5)	(6)	(7)	(8)
<b>통일의 필요성</b>	연령	성별	교육수준	정치성향	범죄문제	탈북자만남	블루칼라	경제만족도
1: 전혀 필요없다.	-0,00133	0,0154	-0,00805	-0,00853	-0,0101	-0,0104	0,00461	-0,00633
2: 별로 필요하지 않다.	-0,00465	0,054	-0,0283	-0,0299	-0,0355	-0,0366	0,0162	-0,0222
3: 반반/그저 그렇다.	-0,00355	0,0413	-0,0216	-0,0229	-0,0271	-0,028	0,0124	-0,017
4: 약간 필요하다.	0,00277	-0,0321	0,0168	0,0178	0,0211	0,0218	-0,00962	0,0132
5: 매우 필요하다.	0,00676	-0,0785	0,0411	0,0435	0,0516	0,0532	-0,0235	0,0323
관측치	16,741							
<b>통일의 개인이익</b>	(1)	(2)	(3)	(4)	(5)	(6)	(7)	(8)
	연령	성별	교육수준	정치성향	범죄문제	탈북자만남	블루칼라	경제만족도
1:이익이된다.	0,00172	-0,0815	0,0372	0,0397	0,0950	0,0773	-0,0139	0,0461
관측치	16,741							
<b>통일의 집단이익</b>	(1)	(2)	(3)	(4)	(5)	(6)	(7)	(8)
	연령	성별	교육수준	정치성향	범죄문제	탈북자만남	블루칼라	경제만족도
1:이익이된다.	0,00305	-0,0810	0,0678	0,0434	0,0967	0,0820	-0,00598	0,0604
관측치	16,741							

〈표 A-3〉 단일민족과 반이민 정서 종합모형 (한계효과 분석)

	(1)	(2)	(3)	(4)	(5)	(6)	(7)	(8)	(9)
<b>통일의 필요성</b>	연령	성별	단일민족	교육수준	정치성향	범죄문제	탈북자만남	블루칼라	경제만족도
1: 전혀 필요없다.	-0,00128	0,0152	-0,00978	-0,00831	-0,00843	-0,00993	-0,0105	0,00458	-0,00639
2: 별로 필요하지 않다.	-0,00452	0,0535	-0,0345	-0,0294	-0,0298	-0,0351	-0,0372	0,0162	-0,0226
3: 반반/그저 그렇다.	-0,00348	0,0412	-0,0266	-0,0226	-0,0229	-0,027	-0,0286	0,0124	-0,0174
4: 약간 필요하다.	0,00272	-0,0322	0,0208	0,0176	0,0179	0,0211	0,0223	-0,00972	0,0136
5: 매우 필요하다.	0,00657	-0,0777	0,0501	0,0426	0,0433	0,0509	0,054	-0,0235	0,0328
관측치	16,741								
<b>통일의 개인이익</b>	연령	성별	단일민족	교육수준	정치성향	범죄문제	탈북자만남	블루칼라	경제만족도
1: 이익이 된다.	0,00173	-0,0815	-0,000302	0,0372	0,0398	0,095	0,0773	-0,0139	0,0461
관측치	16,741								
<b>통일의 집단이익</b>	연령	성별	단일민족	교육수준	정치성향	범죄문제	탈북자만남	블루칼라	경제만족도
1: 이익이 된다.	0,00309	-0,0812	-0,00954	0,0675	0,0434	0,0969	0,0818	-0,00596	0,0603
관측치	16,741								

〈그림 A-1〉 연령대별 통일의 필요성 평균 추이



\*주: 위 그래프의 세로 축은 “통일의 필요성” 문항의 연령대별 변수값의 평균이다. 해당 문항의 변수값은 “1: 전혀 필요하지 않다.”부터 “5: 매우 필요하다”로 구성되어 있다.

## Analysis on anti-unification perception using anti-immigration models

Jung, Seungho (Incheon National University)

Cho, Yongshin (Seoul National University)

Kim, Kyoochul (Korea Development Institute)

### Abstract

This research utilizes the data from ‘Unification Perception Survey’ of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anti-unification perception in South Korea. Established theories on anti-immigration sentiment were employed as the models for this analysis. We find that the variables which represent the anti-immigration sentiment models well explain both the ethnic-based unification perception and the benefit-based unification perception. Meanwhile, the variable which represents mono-ethnicity had its limits in explaining the benefit-based unification perception. The results imply that the unification perceptions of South Koreans can better be explained by general theories of anti-immigration sentiment than the country-specific variable of mono-ethnicity. Furthermore, we also find that the socially and economically vulnerable cohorts such as younger, less educated, female, and blue-collar workers are more likely to have a pessimistic perception on unification.

Keywords: Unification Perception, Anti-Immigration Models, Ethnicity

**정승호 (Jung, Seung-ho)** \_\_\_\_\_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은행에서 북한 경제, 남북경제통합을 주제로 연구하였다. 주요 저서와 논문으로는 “Measuring North Korean Marketization: An Index Approach”(공저, 2022), 『중국의 대북 무역과 투자』(공저, 2017) 등이 있다.

**조용신 (Cho, Yongshin)** \_\_\_\_\_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박사과정 재학 중이다. 관심분야는 북한경제와 통일의식이며 현재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진행 중인 북한경제 관련 연구주제는 북한경제의 비공식 시장 및 비공식 소득 등 비공식 경제 전반과 북한경제에 만연한 뇌물의 역할과 경제적 효과 등이다. 통일의식 관련 연구로는 연령별, 세대별 통일의식 변화요인 분석, 특히 경제적 요인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 중이다

**김규철 (Kim, Kyoochul)** \_\_\_\_\_

한국개발연구원(Korea Development Institute) 북한경제연구실에서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북한 경제 전반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 주제는 북한의 거시 경제, 북한의 무역 및 북한 주민들의 소득과 후생 등이다. 그 외에도 남북경협, 한국 사회의 통일의식, 탈북자의 남한 적응 등에 관심이 있다. 최근 수행한 연구들은 “남북교역과 남북관계의 상호 영향 분석: 남북교역의 평화효과와 정경분리 원칙”(2022), “The Economic Costs of Trade Sanctions: Evidence from North Korea”(2022), “The North Korean Economy seen by Satellite: Estimates of National Performance, Regional Gaps based on Nighttime Light”(2022), “지속된 코로나19와 북한의 대외무역: 2021년 북한의 대외무역 평가”(2022), “북한의 식량가격 결정요인 연구”(2021) 등이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